

## 제11회 농업인의 날 축하 메시지

열한 번째 맞는 '농업인의 날'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

지금 농업과 농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저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하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그 어떤 도전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

이미 많은 농업인들이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.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,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개방에 맞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는 더욱 키워 나가고 지켜야 할 분야는 꼭 지키겠습니다. 영세·고령 농가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.

기존의 '농업·농촌종합대책'과 '119조 원 투융자계획'을 지속적으로 점검·보완하는 것은 물론 개방에 대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해 가겠습니다.

농촌을 되살리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농촌공동체와 생

태계를 복원하고 교육과 의료, 문화 등 생활여건을 개선해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 지난달 '전원마을 페스티벌' 에서도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
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도전합시다.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.

다시 한번 '농업인의 날' 을 축하드리며,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